

고은 불교대하소설



서해의 다른 무인도들은 이미 그런 일을 이어오고 있거나 그 가운데서 무욕도가 인담이 건너오도록 섬 자체의 본래면목에 사람이 끼어들어 그 본래면목을 사람의 것으로 삼았던 것이다.

새삼스럽게도 우녀는 그녀 혼자서 힘으로써 그동안 이 섬이 그들에게 배풀어준 것이보다 이 섬이 그들을 불러들여 섬의 한군데를 꾸었다고 여기기까지 하였다.

인담이 없는 곳에서 인담의 지위가 더욱 격하게 된 우녀의 심경에는 무욕도의 고독으로 하여금 쏘아대는 눈빛의 힘을 몰아서 바다 속의 고기들이 물속에서 눈빛을 물에 적셔버리는 것처럼 그녀의 눈은 따뜻한 눈물로 고여있게 되었다.

"내가 화상을 이렇게 연모하는 것인가." 라고 그녀는 그녀의 발꿈치를 보듯한 바위 끝에 다친 아픔과 함께 떠난 사람을 하나의 아픔으로 삼고 있었다.

"다 떠나버린 빈 섬이야말로 커다란 도를 이룬 경지이려... 아니 다 떠나버린다는 것은 남은 두 사람이 떠나는 것이자 이 섬이 오래전부터 가꾸어온 소나무나 다른 나무를 그리고 풀과 바위 바위 위를 넘겨주고 있는 흙들이야말로 이 섬의 일자가 아닌가. 우리 무욕도 식구들이야 그동안 이 섬에 신세진 한동안의 나그네들이 아니었는가... 아 오랜만에 술이라도 취하고 싶구나... 지난날 예성강 나무터의 한 주막에서 빈 속에 얻어마신 막걸리 한 사발로 빈 들었던 일이 떠오르다... 얼마만인가... 인담화상이 오지 않는다면 나 혼자 이 도량을



그곳 숲속에서 등쪽 내리막에 다달아 거기서 육지의 바닷가 전체를 한눈에 담았다. 그녀의 눈에는 그 진경(全景)으로서의 풍경과 함께 그 풍경 속의 한 석불이 이쪽을 향해서 오래오래 서 있는 것과 그 석불 뒤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어떤 사람

새벽이었던가. 인담이 누운 옆에 사람 기색이 있었다. 제 정신을 차리고 더듬어 보니 그 집 남자가 아닌가.

화주승에게 넘긴 것이다. 아무튼 우녀가 본 인담은 이때의 인담이었는지 모른다. 그런 인담은 무욕도에 있던 인담이 아닐 만큼 달라져 있었다. 그것은 오래동안 풀고 있던 일을 이루었기 때문이었을까. 그것도 아니라면 무욕도의 공부에 끼어있는 이끼가 벗겨질 만큼 육지의 여기저기에서 빛나고 있는 법열(法悅)의 기운들을 쏘여 새로운 삼신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인가.

꽃 속에 노니니 그 향기 꽃 속에 가득 하여라 (弄華香滿衣)

인담의 몸에서도 정녕 무욕도의 바닷바람에 젖은 냄새와는 다른 냄새가 풍겨나오는 것 같았다.

그는 화주승으로부터 실로 진기한 백옥(白玉)으로 된 작은 병을 선물로 받았다. "이 빈 병안에서 이따금 향내가 우러나올 것이요. 향기가 향기라는 것도 덧없는 오관(五官)중의 한가지 그림자에 불과하겠나... 아무려나 물의 심심풀이로 지니고 있으면 어디 가다가 여객(旅客)의 국밥 값이라도 하게 되겠지"라는 그의 너털너털한 말은 장황한 것만같이나 어떤 뜻도 머금고 있는 것 같았다.

"이를 감사하기에는 너무 모자랍니다"

"앞으로 인담선사께서도 그런 용동(龍動)의 시절이 올터인데... 그럼 어서 건너 가지시요. 서하 임춘선생은 이제 나에게 맡겨주시고... 이제 선사는 임춘을 내주신 은사 담인보살의 숙원을 다 이루어드린 것이니까."

"다시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럼 어서 먼 길 조심하시도록... 하기야 몸 가는대로 가는 것이 무상대도(無上大道)일 것이요 하하"

아니나 다를까, 인담은 오래 진 집을 벗어놓은 듯이 마음이 활짝 열려 부름없고 몸은 내비인양 가벼웠다.

그는 무욕도로 건너가는 것기에 오기까지 도중에서 하룻밤 머물러야 하였다. 인담도의 소금고개 넘기전의 한 오막살이에서 하룻밤을 의존하였다. 노인파 외동딸인 남자가 살고 있어서 인담은 남자가 새로 지은 밥상을 받았다. 마치 비룡사동간의 일 같았다.

눈썹이 길고 눈빛이 등산불빛을 물리치도록 집었다. 목이 길었다. 노인의 좋은 잠판을 담은 것이었다.

"마침 목이 마르던 참이라..."라고 느린 말투가 이어졌다. 송봉그릇을 딸이 가져올 때까지 인담은 벌써 밥을 거의 먹어갔다.

"자야 한모금 마십시오." 그것은 송봉이 아니라 술이었다. 하루네

"은사의 숙원을 이뤄드렸으니 이제 龍動의 시절이..." 서하문집을 간행한 인담은 짐을 벗은 듯 가벼웠다

백옥의 병

우녀의 나날은 인담이 떠난 이래 그녀 혼자서 섬을 독차지하고 있는 황당그림한 것이었다. 이를테면 그것은 섬 전체가 8만대장경의 책더미로 뒤덮여서 어떤 책부터 읽을지 모를 지경이 된다는 가정 따위는 조금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허무감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이 섬에서 오직 한 가지의 책을 지니고 있었던 서하문집의 인담이야말로 서하문집이 그저 책이기보다 그가 반듯이 갖추고 있어야 할 가사나 밥을 담아먹은 바리때와 다를 바 없었다. 그것을 책으로 보아, 문자들이야 빠졌다고 한번씩 내치른 그녀 자신이 혼자서 나날을 지내는 동안 하나의 숙질없는 누우침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만권의 책인데 어찌 그것이 책일 뿐이겠는가. 이미 그 책더미 속에 파묻힌 젊은 선비가 있다면 그 선비는 책 속의 문자에 예속되기보다 그 문자들이 지어내는 비문자 너머의 찬란한 세계를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는 또다른 실상이 아니겠는가.

책의 내용만큼 그 이치와 주제가 그것을 읽는 사람을 충성스러운 노복을 만드는가 하면 어느덧 그 노복은 자유를 얻어 훨훨 날고 있는 해방일진대 인담이 임춘의 애절한 시를 읽노라면 그 애절함이란 어느덧 또하나의 세상을 이루어 임춘의 삶과 비슷한 방향을 기약하게 되는지도 모른다.

"인담화상이 나보다 한 수 위였어" 라고 우녀가 결코 책 따위로 뒤떨어지지 않은 섬의 여기저기를 돌아다보며 중얼거렸다.

그녀는 이어서 어떤 생각에 미치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혹시나" 하고 고개를 기울여주려까지 하였다.

"혹시나... 무욕도에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르겠지?" 이런 생각은 더 나아가서... "나도 이곳을 떠나버린다면... 그래야만 이 섬은 옛날의 사람 없는 섬으로 돌아가 그야말로 무욕의 섬이 되겠지... 누가 파도소리를 듣고 누가 이토록 포기할 줄 모르고 불어대는 바람을 감당할 것인가."

떠나 그 예성강 나무 주막에 의탁하여 술꾼들에게 술이나 따라주며 살아갈까..."

그녀는 삼연하기까지 한 청정으로서의 정신적 긴장보다 몽롱한 취기야말로 많은 수행자들이 겪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경지인지 모른다고 여겼다. 진폭이라는 사람을 그때 떠올렸다. 언젠가 불이 전라도 바닷가에 있는 진폭도인을 찾아갈까라고 말하는 것도 생생하게 떠올리고 있었다.

"아저러." 그녀는 술에 관한 일이라면 여기서 백길로 하루 안에 갈 수 있는 곳에서 사는 그 무애승 진폭을 더 이상 떠올리기보다 부처님 당시 부처님을 몰아내고 그 교단을 장악할 의도를 가진 사촌동생이 취한 코끼리를 몰아 부처님을 밟아죽이려 한 일을 떠올렸다.

그녀는 어슬렁어슬렁 섬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았다. 지난날 별채로 있던 용맹정진의 방은 이제 없어졌다. 그곳은 바닷바람의 냄새나 소리가 꼭 끊어진 숲속으로 독립되어 있었다.

이 들어와 있었다. 실로 숲개의 눈처럼 밝은 그녀의 눈이었다.

오랜 석불은 백제시대의 미륵불이거니와 그 석불은 서해에 떠 있는 무욕도의 등쪽 기슭에 있는 천연의 바위틈에 하나가 석불을 빼다 박은 듯이 서 있어서 바다를 사이에 둔 그 두개의 석불은 하나의 인위(人爲)와 하나의 자연을 합치시켜 오랜 시간을 속세의 사랑이나 세속을 초월한 아름다운 상족(相脚)의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저런 바닷가의 석불 뒤에서 움직이는 사람의 모습을 떠올린 우녀의 눈에는 그 사람의 모습이 한층 더 구체적으로 되어 인담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었다.

"인담화상이야! 틀림없이" 과연 그때 인담은 대승산과 가야산을 두루 찾은 동안 정혜사의 화주승에게 서하문집 간행을 의뢰한 뒤 우선 세월의 필사본으로 만든 것을 받았다. 그것을 기를 종으로 포장하여 결망 속에 챙겨서 안면도에 건너오는 중이었다. 그러니까 원본은

라든 인담의 인사도 화주승 앞에서는 없으나마나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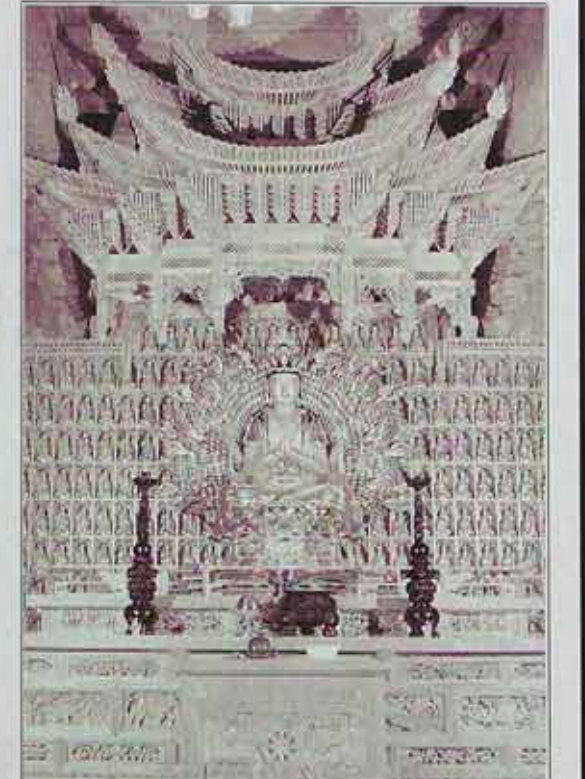
화주승의 한 마디가 인담에게는 놀라운 것이기 때문이었던가.

"부처님께서 상서로운 징조를 나타내시는 것으로 6번진동(六變震動)이 있지요? 그것을 다시 각각 세가지로 나누어 18종 진동이 되지만... 등쪽 땅이 솟아오르고 서쪽땅이 가라앉고 하는 것은 탄생과 도를 깨달을 때 그리고 열반에 들어갈 때 등 여덟가지 큰 일이 있기 위해서는 대지가 진동하는데 그 원인에는 화동(火動) 용동(龍動) 금시조동(金翅鳥動) 사천왕도(四天王動) 등 네가지가 있어요... 알고 보면 그런 일은 부처님의 잠입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얼마전 가야산 일대가 은룡지진으로 흔들렸고 사람과 짐승이 달달달 떨어졌지요. 부처가 하는 일 중생도 하는 셈이었지요. 그때 나는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만 그 지진으로 내 병이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썩 나아버렸지요."

내 절어는 피곤과 배고픈 뒤의 식곤 때문인지 거기에 더하여 뜻밖의 술 때문인지 바로 잠이 들었다. 새벽이었던가. 인담이 누운 옆에 사람 기색이 있었다. 제 정신을 차리고 더듬어 보니 그 집 남자가 아닌가. 어떻게 된 영문인가. 그는 재빨리 일어났다. 그의 옷도 벗겨져 있었다. 주삼주삼 옷을 찾아 입어야하였다. 옆에 누워서 깊은 잠을 자는 남자 물레 문물 가만히 열고 밖으로 나왔다. 등골에 땀이 났다. 기울어진 별들이 마치마름으로 빛의 마당을 팔치고 있었다. 누가 저 하늘의 별무리 만큼 완벽하게 세상을 차릴 수 있겠는가. 먼동 직전인지 한밤중의 어둠과는 다른 어둠 속에서 저 아랫마을의 닭우는 소리도 들려왔다. 그는 길을 나섰다. 그런데 그의 뒤에 따라오는 인기척이 있었다. 그가 돌아다 보았다. 어둠 속을.

그림·조향숙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담집...) 등등
- 불교 목공예품-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불사의 전당 불교조각원

서울 종로구 전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 사 무 실 (02) 738-8447~8
- 공 장 (051) 804-8907
- 부산사무실 (051) 556-0541~3

대표 이진형 합장